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은희<sup>1\*</sup>, 추연식<sup>2</sup>

<sup>1</sup>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p>2</sup>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Factors to Mental Heal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Eun-Hee Lee<sup>1\*</sup> and Youn-Sik Chu<sup>2</sup>

<sup>1</sup>Dep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

<sup>2</sup>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수준과 함께 그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239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그리고 문화 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17.6%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단계별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들 가운데 '문화적 충격',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mental health. The subjects were 239 married immigrant women who live in Pusan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17.6% of the sample had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factors which predict the level of married immigrant women's mental health were cultural shock, fear, and guilty feeling. The findings give us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Mental health, Acculturative Stress

### 1. 서론

통계청자료[1]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총 결혼 건수의 13.6%이다. 즉 100명 가운데 13명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특히 2005년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35.9%)로 3건 중 1건을 차지하며, 이는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급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과 함께 국가 간의 이동을 통하여 출신국의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그리고 이들의 대다수가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전 탐색이나 관찰, 적응 기간 없이 만남과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Lee

Tel: +82-10-9266-2890 email: leh@dongguk.ac.kr

접수일 12년 01월 16일 수정일 (1차 12년 02월 24일, 2차 12년 02월 28일, 3차 12년 03월 26일) 게재확정일 12년 04월 12일

동시에 결혼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단일 문화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 언어 갈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체험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화적응과정에 스트레스원을 두는 스트레스를 Berry[3]는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이때 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임상적 우울,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므로[4] 이민과 정신건강의 이슈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개인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표준을 상실하면서 이러한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결과는 사회적 분리와 개인적 위기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이전의 권한이나 문화, 복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적대감, 불확실성, 정체성의 혼란, 우울 등이 발생 할 수 있다[5].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 또 다른 연구[7]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살충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적응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가운데 그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는 사회적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8],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9] 등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요인을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고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수준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과 이들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가운데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개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며,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과정은 먼저 부산시 소재 다문화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봉사단체 등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 후 전화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락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결혼이민자를 통해 각 나라별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동료를 소개받아 개별적으로 접촉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24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5부를 제외한 총 239부가 분석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 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 2.2 조사도구

#### 2.2.1 문화적응 스트레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andhu and Asrabadi[10]이 개발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열등감으로 구성된 7개 영역의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높다. 이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모두 .66에서 .89 사이를 나타내어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 2.2.2 정신건강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골드버그가 개발한 GHQ(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를 이용하여 신신인[11]이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20)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GHQ는 정신질환자의 선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평점도구로서,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KGHQ-20은 ‘불안’을 측정하는 5문항, ‘우울’을 측정하는 6문항,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을 측정하는 9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에 따라 0-매우 그렇다, 3-매우 아니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채점 방식은 ‘GHQ scoring’을 사용하였다. ‘GHQ scoring’은 정신질환 위험군의 선별이나 정신건강수준의 측정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응답항목에 대한 배점은 0-0-1-1(0-매우 그렇다, 0-그렇다, 1-아니다, 1-매우 아니다)이며 총점의 최대점수는 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수준이 낮다. 이 연구에서의 KGHQ의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9이며, 각 하위변인에 대한 Cronbach's Alpha의 값은 모두 .69 에서 .86 사이를 나타내어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분석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2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수준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점수는 최저 0점에서부터 최고 20점까지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들의 정신건강 평균점수는 7.98(표준편차 5.35)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조사 도구에서 정신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점인 분할점을 선행연구[12]에서 제시한 분할점에 근거하여 13점으로 잡았을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17.6%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대학생 집단의 17%[13]와 유사한 수준이며, 연구대상자의 25.1%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정신건강 상태[14] 보다는 훨씬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불안’, ‘우울’, 그리고 ‘사회부적응’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하위변인들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각 하위변인들의 점수를 문항 수로 나눈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불안이 .4347로 가장 점수가 높고, 그 다음은 우울 .3990, 사회적 부적응 .3798로 나타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변인	구분	명(%)	변인	구분	명(%)	변인	구분	명(%)	변인	구분	명(%)
출신국가	베트남	94(39.3)	결혼기간	2년 미만	59(24.8)	학력	초졸이하	52(21.8)	국적취득여부	취득	85(35.6)
	필리핀	31(13.0)		2-5년 미만	82(34.3)		중졸	81(33.9)		미취득	150(62.8)
	몽골	18(7.5)		5-8년 미만	51(21.4)		고졸	83(34.7)		무응답	4(1.7)
	중국한족	16(6.7)		8년 이상	46(19.2)		대졸이상	22(9.2)			
	조선족	37(15.5)		무응답	1(0.4)		무응답	1(0.4)			
	기타	42(17.6)	Min=20, Max=55								
	무응답	1(0.4)	Mean=28.43, S.D=6.39								
연령	20대	151(63.4)	종교	불교	95(40.3)	월소득(만원)	100미만	2(0.8)	현재직업	전문직·사무직	19(7.9)
	30대	69(29.0)		천주교	14(5.9)		100-150미만	47(19.7)		판매/서비스	13(5.5)
	40대 이상	18(7.5)		기독교	28(11.9)		150-200미만	86(36.0)		생산·단순노무직	27(11.4)
	무응답	1(0.4)		무교	88(36.)		200-300미만	72(30.1)		주부	164(68.6)
	Min=20, Max=55			기타	11(4.6)		300이상	25(10.5)		학생	4(1.7)
	Mean=28.43, S.D=6.39			무응답	3(1.3)		무응답	7(2.9)		기타	9(3.8)
										무응답	3(1.3)

[표 2] 정신건강수준

[Table 2] Mental Health State

변인	빈도(명)	백분율(%)	평균(Mean)	표준편차(S.D)
정신건강수준	239	100.0	7.98	5.35

[표 3] 정신건강의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ental Health

변인	빈도(명)	평균(Mean)	표준편차(S.D)
정신건강	239	.3982	.2681
불안	239	.4347	.2916
우울	239	.3990	.2950
사회부적응	239	.3798	.3123

[표 4]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인 (정신건강하위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회귀계수			t	p	R <sup>2</sup>
		B	표준오차	β			
불안	문화적 충격	.144	.036	.287	4.004	.000	.323
	두려움	.184	.039	.336	4.699	.000	
우울	문화적 충격	.136	.035	.289	3.953	.000	.294
	두려움	.157	.038	.306	4.190	.000	
사회부적응	문화적 충격	.201	.038	.380	5.331	.000	.334
	두려움	.196	.057	.342	3.934	.000	
	죄책감	.085	.033	.179	2.545	.000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며, 다음은 우울과 사회부적응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정신건강의 각 하위영역의 총합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정신건강 점수는 .3982이다.

### 3.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예측 변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표 4와 같다.

먼저 정신건강의 하위변인 가운데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불안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요인들 가운데 ‘문화적 충격’과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결정계수는 .323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요인들 가운데 ‘문화적 충격’과 ‘두려움’이 전체 변량의 약 32%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의 하위변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면, 우울에서도 불안과 유사하게 ‘문화적 충격’과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의 결정계수는 .294로서 우울을 약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에 대한 설명력보다는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 하위변인 가운데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적 충격’,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사회부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결정계수는 .334로서 이들이 사회부적응을 약 33%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수준과 함께 그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 평균 점수는 7.98(표준편차 5.35)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조사

도구에서 정신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점인 분할점을 선행연구[15]에서 제시한 분할점에 근거하여 13점으로 잡았을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17.6%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대학생 집단의 17%[16]와 유사한 수준이며,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검사에서 25.1%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정신건강 상태 [17]보다는 훨씬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우울감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이나 선입견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연구[18]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준이 일반인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그리고 서울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관한 연구[19]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준이 도시의 일반 주부보다 더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불안, 우울, 그리고 사회부적응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의 각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불안과 우울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요인들 가운데 ‘문화적 충격’과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사회부적응에는 ‘문화적 충격’,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정신건강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적 충격’,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문화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의 적응에 따른 불편함과 고통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와서 자신의 출신국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도록 강요받거나 또는 스스로 출신국가를 부정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체성의 위협과

‘죄책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배우자들에게 결혼 전에 반드시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결혼 전 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서로 상대배우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아내나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자신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단지 아내나 며느리가 하루빨리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들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한국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에의 적응을 강요하기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혼전 준비프로그램』에는 남편뿐 아니라 확대가족구성원 모두를 참여시켜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함양시키기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확률적 표집을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농촌과 도시 등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출신국 별로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았다. 출신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결혼 후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강도나 이에 따른 정신건강수준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연구할 때는 이들을 출신국 별로 나누어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Marriage Statistics Result. 2006.
- [2] Berry, J. W., Kim, U., Minde, T. and Mok, D.,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 Migration Review, 21, 491-511. 1987.
- [3] Berry, J. W,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4]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1997.
- [5] Lee, In Seon,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igrant Workers' Mental Health: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4.
- [6] Hovey, J. D., and Magana, C. G.,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002.
- [7] Hovey, J. D., and King, C. A., "Suicide among Acculturating Mexican American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Researc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1997.
- [8] Kim, Yoen Soo, 'A Study on the Effects of Husband's Effort for Comprehension of Wife's Homeland Culture and Psychosocial Support to Mental Heal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s spring Science Council Data. 2007.
- [9] Yang, Ok Kyung and Kim, Yoen Soo,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26. 2007.
- [10] Sandhu, D. and B. R. Asrabadi,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pp. 435-448. 1994.
- [11] Sin, Sen I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6. 2001.
- [12] Sin, Sen I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6. 2001.
- [13] Sin, Sen I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6. 2001.
- [14] Lee, Eun Hee, "The mental Health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Predicto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16, 2003.
- [15] Sin, Sen I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6. 2001.
- [16] Sin, Sen I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6. 2001.
- [17] Lee, Eun Hee, "The mental Health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Predicto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16, 2003.
- [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 Stud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 Policy. 2005.
- [19] Yang, Ok Kyung and Kim, Yoen Soo,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26. 2007.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198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가족복지

**추 연 식(Youn-Sik Chu)**

[정회원]



- 2011년 8월 : 동국대학교 사회과 학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관심분야>  
여성복지, 가족복지